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	봉헌 (340)	성체 (506)	파견 (28)
---------	--------	----------	----------	---------

<p>제1독서 신명 18,15-20</p> <p>화답송 시편 95(94),1-2.6-7.11-12.7.19-9(◎ 7.1과 8.1)</p> <p>◎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p> <p>○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p> <p>○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p> <p>○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 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p> <p>제2독서 1코린 7,32-35</p> <p>복음환호송 마태 4,16</p> <p>◎ 알렐루야.</p> <p>○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p> <p>복음 마르 1,21-28</p>	<p>성소를 위한 기도</p> <p>○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p> <p>●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p> <p>○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p> <p>●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p> <p>○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p> <p>●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p> <p>◎ 아멘.</p>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1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0	\$90	\$8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오 베드로/ 오 루시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김 마론/ 최 마테오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3/17	이 글라라/ 김 글라라
2/17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24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2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2/11/18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은진-벨라렛다 자매님, 정이진-루시아 자매님

정세현-레오 형제님, 황연경-안나 자매님, 녀: 정한나-아나스타사

황인범-가롤로 형제님, 자: 황태양-스테파노, 녀: 황지호-스텔라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셨다가 안가져오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올해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볼, 권당 5 볼 로 책정 되었습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신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 년도 소공동체 모임 시작 및 성경공부

곧 매달 세번째 주일에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주를 뺀 나머지 주일에는 유요한 형제님이 이끄시는 성경공부방 이 개설 됩니다. **** 유요한 형제님께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한인 공동체 이메일 개설 sanclemente.kc@gmail.com

교우들의 새로운 소식등 공지를 원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연도 최(이)율리안나 자매님

돌아가신 최(이)율리안나 자매님의 연도가 오늘 미사 후 있겠습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st. Vincent de Paul center

3 월 13 일(화) 우리 한인 공동체의 조식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자매님

말씀의 이삭

방해받을 수 있음에

송혜숙 안나 -前 서울예술대학 교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마르 2,3-4)

성경공부를 할 때 내게 큰 울림을 주었던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네 친구가 아픈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 우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문비나무의 노래」에서 ‘예수가 방해받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슐레스케는 그 일로 “지붕은 파손되었고 예수는 설교를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적, 신체적 장애는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본 이 일화에서 나는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도록, 그 순간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방해하도록 놔두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내 생각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줍니다. 나를 방해받도록 놔둘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지닐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자클린 뒤 프레라는 영국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던 그녀의 엘가의 첼로 협주곡 연주는 압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28세이던 해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그녀의 연주 인생에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방해꾼을 그녀 자신을 가르치는 일로 받아냈습니다. 42세로 죽기 전까지,

그녀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녀가 함께 나누겠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잠시 그녀를 방해하기는 했지만 그 방해를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유사한 모습을 매일 산책하는 길옆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배웁니다. 산책을 하려면 물길 가는 길목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나무토막들인데 근처에 오래된 밤나무가 한 그루 있어 부러진 가지들이 물길을 막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물길은 잠시 오던 길에서 멈추는듯하다가 다시 제 길을 찾아 흐릅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흐름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랑 또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모든 것을 놓고 아이를 맞아주는 엄마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의 전환점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는 방해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열어 둡니다. 방해가 다른 물결을 타고 흘러 가도록 놔두는 그런 여유 말입니다. 올해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덕목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삼종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삼종기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11세기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티나 성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을 파병하면서 승리를 위해 하루에 세 번 성당의 종을 치면서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을 시초로 봅니다. 그 이후 1318년 교황 요한 22세가 저녁에 종이 울리면 평화를 위해 성모송을 세 번 바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아침에도 하게 되고 15세기에 와서는 낮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시기에는 부활삼종기도를 바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